

# Gary Yates 박사, 예레미야, 강의 26, 예레미야 30-33, 새 언약

© 2024 게리 예이츠와 테드 힐데브란트

이것은 예레미야서에 대한 강의를 하는 Dr. Gary Yates입니다. 26회기, 예레미야서 30~33장, 새 언약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의 초점은 새 언약에 대한 예레미야의 약속에 맞춰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회복에 대한 예레미야의 약속을 보면서 이 구절의 중심 중요성을 이해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새 언약이 하나님께서 회복과 구원을 가져오실 방식이라는 점에서 예레미야서 30장부터 33장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수세기에 걸친 반역의 패턴을 깨뜨릴 그의 백성의 회복을 위해 무엇을 하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깨어진 결혼 생활을 어떻게 치료하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불충실한 아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하실 것입니까? 새 언약이 그 중심이다.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새 언약은 여러 면에서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 주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구약은 우리에게 새 언약의 약속을 줍니다. 신약은 우리에게 새 언약의 성취를 제공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새 언약에 집중하는 데 시간을 쓰지 않는다면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격을 잃게 될 것입니다. 저는 본문을 읽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약속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새 언약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하지만 그 구절을 읽기 전에, 구약 전체에 걸쳐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언약 역사의 맥락을 기억하십시오. 구약성서의 구원 역사는 하나님께서 인류를 그분과 올바른 관계로 되돌리려고 노력하면서 사람들과 맺으신 일련의 언약을 중심으로 세워졌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하나님께 반역하면서 관계가 분열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부섭정이라는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땅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분의 영광과 존귀를 반영해야 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들은 에덴동산을 온 땅에 펼쳐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이에 반역했을 때, 하나님은 고대 근동의 왕처럼 일련의 언약을 통해 그의 통치를 시행하려고 하셨습니다.

노아와 맺은 첫 언약, 다시는 땅을 멸하지 않겠다는 약속,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자는 자기의 피를 흘릴 책임이 있다. 바벨탑의 반역 이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것입니다. 그는 그에게 땅과 많은 후손을 약속할 것이고, 이제 그는 하나님이 원래 아담에게 주신 축복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이 언약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모세 언약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확립해 줄 것입니다. 그들이 언약에 순종하면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들이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그 정점의 역사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언약의 저주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왕을 주셨고, 다윗의 집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다윗 언약은 다윗의 가문이 영원히 통치할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다윗의 왕좌와 땅에 대한 통치권을 확립하셨습니다.

결국 다윗과 그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부왕으로서 온 땅을 다스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부과된 의무는 그 가계에 속한 다윗 왕가 각각이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따라 축복을 받거나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서 나타나는 각 언약과 이전에 이미 나온 언약 사이에는 연관성이 있습니다.

다윗 왕은 그들이 그 땅을 소유하고 적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게 해 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도 여호와께 순종하기 위해 그 땅을 지키고자 한다면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는 다시 다윗 집의 실패의 정점이며 그들에게 임할 심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등 일련의 언약을 세우셨으나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과정에는 이런 불순종의 오랜 패턴이 있습니다. 새 언약은 궁극적으로 이에 대한 해결책이 될 것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위로서에 묘사된 이 영광스러운 회복을 어떻게 이루실 것인지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통로가 있습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니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으나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이라.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

다시는 각각 자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그 죄를 기억하리라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더 이상 죄를 짓지 마십시오.

따라서 이번 세션에서 우리는 이 구절과 여기에 주어진 약속, 구체적인 약속, 그리고 이것이 구약의 다른 부분에서도 어떻게 구체화되는지 구체적으로 집중할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볼 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31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맺을 언약, 곧 이 새 언약은 내가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리라 하신 것입니다.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이 새 언약의 중심이 되는 것과 첫 언약이 할 수 없었던 일을 궁극적으로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것은 출애굽을 초월하는 구원 행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 세션에서 이 새로운 출애굽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사야가 두 번째 출애굽이 첫 번째 출애굽보다 더 클 것이라고 말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첫째, 주님께서 그들을 많은 나라에서 인도하실 것이라는 점입니다.

둘째, 그들은 애굽에서 했던 것처럼 바벨론 땅을 급히 떠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셋째, 주님은 광야를 오아시스로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땅으로 돌아가는 여행이 더 쉬워질 것입니다.

넷째, 그들은 여호와께 경배하러 그 땅으로 돌아와서 다시는 그 땅에서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1차 출애굽을 넘어서는 구원의 행위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여기서 눈에 띄는군요.

이것은 내가 나의 사랑과 은총과 자비와 긍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낸 것과 같은 언약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사실, 그것은 그보다 훨씬 더 큰 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가져다 주실 것은 이 새로운 출애굽과 더 큰 구원을 통한 구원의 행위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마침내 그것을 굳게 만드는 일이 될 것입니다. 관계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레미야 23장 7절과 8절에서 회복을 약속하면서 첫 번째 출애굽보다 더 큰 두 번째 출애굽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사람들이 더 이상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그 자손을 인도하여 인도하신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말하노라 북쪽 땅에서 나온 이스라엘 집. 그러므로 구약의 역사를 통틀어 구원의 패러다임적 행위는 출애굽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은 너무나 커서 그들은 더 이상 그것을 언급조차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더 큰 구원의 행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 걸쳐 구원의 역사에서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일은 당신에게 하나님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구출하시고 인도하시는 패턴이 있습니다.

구원이 바로 그것이다. 하나님은 애굽의 속박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구출하셨습니다. 새 언약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포로의 속박에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의 포로 상태에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오십니다. 그래서 이런 반복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구원하신 방식은 현재에도 구원하시는 방식이요, 미래에 구원하시는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GK Beale도 그의 신약신학에서 구원사에 대해 강조한 것은, 구원은 구원사의 전진의 각 측면에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더 큰 일을 행하시는 일련의 구원과 새 창조의 행위로도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 . 따라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타락한 인류나 그의 백성을 그분께 다시 데려오시는 일련의 새 창조 행위가 있습니다.

새로운 창조의 각 행위와 구원의 행위를 통해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왕국이 완전히 회복되고 인간이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게 될 곳으로 우리를 데려갈 더욱 강력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없애실 것이기 때문에 다시는 심판이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역사가 어떻게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담은 죄를 짓고 반역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아담, 노아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아담에게 주신 것과 동일한 지위를 노아에게도 주셨습니다.

구원이 있고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 후에 노아를 회복시키실 때 새로운 창조가 있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에는 두 번째 아담, 또 다른 새로운 아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동산에서 왕과 제사장의 지위를 받은 것처럼, 아브라함의 후손에게도 왕들이 너에게서 나올 것이며, 그들이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그들은 아담의 위치로 회복됩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은 그들을 애굽의 포로 생활에서 이끌어 내시는 새로운 창조의 행위를 행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다윗과 솔로몬과 함께 새로운 아담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온전히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소유하고, 그곳에 있던 대적들을 제거하고, 성전과 영원한 성소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도록 도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새로운 아담이고, 그곳에서 새로운 창조의 행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포로 생활이 일어날 때, 이 새로운 창조, 이 새로운 출애굽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그의 백성을 위해 행하신 그 어떤 것보다 더 클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약성경으로 넘어가면서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신 구원과 새 언약이 초기 단계에서 시행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재림 때에 마침내 새 하늘과 새 땅을 가져올 새 창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성경 전체에 걸쳐 끊임없이 존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관되고 끈질기게 사람들을 구출하고 구원하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비와 은혜로 행하시는 일입니다.

그분은 사람들을 죄의 속박에서 이끌어 내고 계십니다. 그분은 이 땅에서 자신의 왕권을 행사할 새로운 아담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궁극적으로 그것은 이 새 언약이 온전히 경험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데려가는 것입니다.

이 구절의 첫 번째 약속은 주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을 위해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속박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출애굽 과정에서 이스라엘이 겪은 일의 관점에서 볼 때,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이집트는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자비와 은혜의 행동으로 하나님께서는 모세 안에서 그들을 위한 구원자를 세우셨습니다.

그는 재앙을 집행합니다. 그분은 홍해에서 구원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새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다.

그것은 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더 크게 나타내는 것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구원이 굳건해지려면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전의 구원 행위에서 주님은 자신을 이스라엘의 남편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위대한 구원 행위를 통한 미래의 구원 행위에서 주님은 궁극적으로 아내의 신실함을 보장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충실한 계약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괜찮은.

이것이 제 생각에 이 일의 시작 부분입니다. 이제 저는 이 구절의 마지막 부분인 34절로 가서 두 번째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글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놀라운 구원의 행위, 이 더 큰 새 창조의 행위, 이 새로운 출애굽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무엇을 포함합니까? 왜 이것이 훨씬 낫습니까? 이 본문에서 두 번째로 강조되는 것은 이 새로운 구원의 일부가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신 은혜와 용서를 넘어서는 근본적이고 값없는 죄의 용서를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34절 마지막에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괜찮은. 유배의 경험에서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배는 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근본적이고 값없는 용서를 약속하실 때, 그것이 바로 구원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서 주님은 백성들에게 그들의 수고와 수고의 세월이 끝났고 이제는 용서할 때임을 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자신의 죄를 묻지 않으시며, 사람들의 죄를 그들에게 묻지 않으십니다.

14장에 보면 예레미야 시대의 사람들이 주님께 나아와 하나님께 이 죄를 자백합니다. 좋아 보인다. 좋은 것 같아요.

그들은 올바른 말을 합니다. 그것은 한 가지를 제외하고는 죄를 고백할 때 원하는 모든 것입니다. 그들의 삶에는 진정한 회개가 없습니다.

주님은 내가 그들의 고백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성명이 나왔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으십니다.

그분께서는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죄를 벌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왜 포로생활을 하게 됩니까? 왜 유다는 포로로 끌려가나요? 주님께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에 대해 처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음, 구원은 분명히 새 언약 안에서 주님은 더 이상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포로생활에서 경험한 것을 절대적으로 받을 자격이 있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의 죄를 근본적이고 값없이 용서하실 것이라는 약속도 있습니다. 그는 그것들을 지워버릴 것입니다.

그는 그들을 데려갈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예레미야의 메시지와 이사야서 후반의 메시지도 포로 생활에서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도 같은 것을 봅니다.

이사야서 43장 25절에 이르되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관찮은.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을 용서하시는가? 그것은 그들이 누구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들을 없애 버리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그는 지우개를 가져다가 기록에서 간단히 제거합니다.

그러나 포로 생활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에 대해 책임을 물으셨습니다. 그는 그들을 처벌했습니다. 그분은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을 노예로 두셨습니다.

그러나 이 용서는 애초에 형벌을 초래한 죄가 제거되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당신의 죄를 기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5절은 예레미야서 31장 34절과 똑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나를 기억하고 함께 논쟁하자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옳다는 것이 입증될 수 있도록 당신의 주장을 설명하십시오. 너희 시조가 죄를 지었고 너희 중재자들이 내게 범죄하였느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용서하기를 예비하시느니라.

44장 22절, 이사야서 후반부에 이스라엘의 죄 사함에 관한 또 다른 약속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 허물을 구름 같이 도말하며 네 죄를 안개 같이 도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너희 죄가 아침에 사라지는 안개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좋아요. 여호와께서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그들을 포로로 보내셨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면 그들의 죄가 말소되어 구름 같이 사라지리라. 그런 다음 이사야 44, 22장에서 내가 너희를 구속하였으니 나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좋아요. 용서가 얼마나 급진적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44장 22절에서 주님은 그들이 그분께 돌아오기 전에도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때로 선지자서에서는 신의 주도권과 인간의 책임 사이의 상호작용이 나타나며,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이나 선지자가 하려는 일에 따라 다른 강조점이 있습니다. 때때로 그들은 신성한 주도권을 강조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경우에는 확실히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들이 돌아오기 전에도 용서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오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은 주님의 용서입니다. 선지자의 글에는 예레미야 29장과 같은 다른 구절도 있는데 그들이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회복하실 것이라.

그러면 어느 선지자가 우리에게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까? 음, 둘 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회복을 시작하실 분은 분명히 주님이시지만, 인간적인 측면에서도 그들이 주님께 돌아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44장 22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서는 그들이 그분께 돌아오기도 전에 그들에게 베풀어지는 용서입니다.

구약 전체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미지와 은유 중 일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해 주시는 용서를 설명하는 데 사용되는 이미지입니다. 시편 103편, 주님은 동이 서에서 먼 것같이 우리의 죄를 멀리 옮기시리로다. 그가 거기서 무슨 말을 하는지 상상해 보세요.

미가 7장에서 또 다른 선지자가 포로의 심판 이후에 그의 백성의 회복을 약속할 때, 미가 7장 18절은 문자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의 죄에 대해 전쟁을 선포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도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온갖 성전을 치르셨습니다. 앞으로 주님께서서는 이스라엘의 죄에 맞서 거룩한 전쟁을 치르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죄를 짓밟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들을 발로 짓밟으신 후에 그들을 바다 깊은 곳에 던지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토록 변화를 가져올 새로운 출애굽의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용서의 위대함과 이것의 급진적이고 극단적인 성격이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구약성서 전체에 용서에 대한 온갖 종류의 예가 있다고 묻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의 주요 특징 중 하나이자,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시는 야훼 하나님으로서 자신에 대해 직접적으로 드러내시는 것 중 하나는 그가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가 크시며 이 모든 종류의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것들. 우리는 구약의 역사를 통해 그것을 보아왔습니다.

그러나 나는 새 언약에는 첫 언약에서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정도의 용서가 여기서 제공된다고 믿습니다. 옛 언약과 모세 율법 하에서 사물이 확립된 방식에서, 죄를 속죄하는 희생은 희생의 요구 사항이 있었고, 희생은 특정 유형의 죄에 대한 속죄만을 제공했습니다. 그것은 단지 의도하지 않은 죄에 대한 속죄를 제공했을 뿐입니다.

다윗과 같은 사람이 하나님께 반항적인 죄를 범하고, 밧세바와 간음을 범하고 그 남편을 살해했을 때, 다윗은 그 시점에서 하나님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칠 수 있는 희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편 51편에서 하나님께 나아와 법정의 자비에 몸을 맡기고 하나님께 그의 죄를 지워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역사 전반에 걸쳐 그들을 위해 자주 그렇게 하셨습니다. 죄를 위한 희생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공하십니다. 그러나 이 언약이 약속하는 것은 희생제물처럼 의도적인 죄와 의도하지 않은 죄를 반드시 구별하지 않는 자유로운 자비와 은혜와 용서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다른 제물로 덮이지 못한 모든 죄를 덮기 위해 매년 속죄일을 계속해서 필요로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이라도 그들의 모든 죄를 다 덮을 수 있는 제사를 드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속죄가 필요하다는 사실은 그들이 하나님의 면전에서 살기 위해서는 그 죄를 속죄해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들은 제단에 쌓인 죄의 더러움을 씻어내고 실제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1년 더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은혜롭게도 매년 그들을 위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새 언약의 약속이 포함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과거 역사에서 경험했던 것 이상의 자비와 용서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용서의 급진적인 성격과 자비의 깊이입니다. 그것이 아내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이고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이 신실한 백성이 되도록 확신시킬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성경에서 용서를 볼 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볼 때, 실제로 용서를 경험한다고 해서 우리가 무엇을 면할 수 있는지 살펴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진정한 용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다고 말하고 싶고, 그분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큰 사랑에 대한 나의 헌신과 사랑을 그분께 다시 표현하고 싶은 정도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용서는 라이선스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용서는 사랑과 헌신에 동기를 부여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죄를 짓자고 하거든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더 짓자고 말합니다.

신 금지.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죄에서 구원하시는 방법 중 하나는 용서에 대한 사랑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과거 역사에서 온갖 방법으로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이 신흠여행에서 돌판을 다 이루기도 전에 금송아지를 숭배하며 하나님을 속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러나 장래에 내가 그들과 맺는 언약은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리라 그보다 훨씬 나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더 깊은 수준의 용서와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더 깊은 경험이 그 일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새 언약은 옛 언약의 실패로 인해 제기된 문제를 해결하게 함에 있어서, 음, 과거에 대해서는 수백 년 동안 발생한 모든 죄와 실패를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그러나 또한 뭔가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이 새 언약이 효과가 있으려면 미래는 어떨까요? 이러한 죄의 패턴이 계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습니까? 음, 용서는 부분적으로 그런 동기를 부여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시는 이 새로운 구원의 두 번째 요소인 이 새 언약의 핵심은 주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새로운 능력과 새로운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서에서 그것이 설명되는 방식은 예레미야가 말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법을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실 것이라. 그래서 옛 언약에서는 돌 위에 율법을 기록하셨습니다.

그리고 외부적으로 사람들에게 서서 그들에게 어떤 일을 하라고 명령하는 것은 바로 이 계명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풀밭이나 젖은 페인트 위를 걷지 말라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외적 계명을 지키려는 내적 욕구가 없이 내적만 갖고 있을 뿐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은 풀밭 위를 걷지 않겠다는 소망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 젓은 페인트를 볼 때, 나는 그 표지판을 거기에 붙인 사람의 소망을 우선적으로 담아 줄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에게 나에게 복종하고 이 법과 이 계명들. 좋아요. 이것은 예레미야 시대의 사람들에게 특히 있었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기도 합니다.

죄 사함, 예레미야야,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들의 죄를 기억하여 벌하리라. 그래서 해결책은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의 죄를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내가 그들에게 새 마음을 주고 그 마음에 법을 기록하겠다고 말씀하실 때, 이는 예레미야 17장 1절에서 우리가 읽은 내용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섬기고 있는 사람들의 상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쇠편으로 기록되어 그들의 마음 판에 새겨졌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명판에 메시지와 문자, 단어를 새기는 데 사용되었던 철 도구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죄는 그들의 마음과 품성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본성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마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죄가 새겨진 마음들을 취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지우고 그의 말이 새겨져 있는 마음으로 대체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내적인 욕구를 갖게 될 것입니다.

17장 9절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했습니다. 누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글썄, 주님은 그의 백성을 위해 심장 수술을 하시고 그들의 심장 문제를 치료하실 것입니다. 32장 39절부터 40절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의 마음에 율법을 새기실 때 그들이 그분께 순종하려는 열망을 갖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들은 항상 충실할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 속에 두려움을 넣어 주실 것입니다. 그들은 예레미야 시대에 백성들이 겪었던 율법과 이 포로의 재앙을 지킬 것입니다.

새 언약이 그들에게 순종할 수 있는 능력과 능력을 줄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다시는 그런 일을 겪을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언약과 새 마음에 대한 개념을 생각하기 시작할 때, 구약성서의 온갖 구절과 것들이 내 마음 속에 흐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새 마음을 주실 것이라는 생각은 신명기에서 이미 언급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저는 예레미야서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일을 반영한다고 생각되는 신명기에서 일어나는 움직임을 우리가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10장 16절에서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베풀고 다시는 고집을 부리지 말라. 당신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데 방해가 되는 마음 바깥의 딱딱한 부분을 잘라내십시오.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마음의 변화를 경험하십시오. 당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분께 순종하려는 열망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신명기와 구약의 나머지 부분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이 완고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추방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신명기 30장에서 하나님께서는 포로 생활을 하는 자기 백성을 위해 무엇을 하실 것입니까? 이르시되 그들이 이 땅에 거하여 그에게 돌아와 회개하여 주께로 돌아오면 여호와께서 너희 마음과 너희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희로 너희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

그래서 신명기는 마음을 할례하여 주님께 드리라는 개념으로 시작됩니다. 그건 당신의 책임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할 수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순종할 능력이 있었습니다. 이에 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을 따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주님은 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그들을 변화시킬 심장 수술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에스겔서에서도 같은 움직임을 봅니다. 에스겔 11장은 죄송합니다. 에스겔 18장입니다. 그 구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에스겔 18장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행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새 마음과 새 영을 가지라. 오 이스라엘 집이여, 너희가 어찌하여 죽으려고 하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나요? 새로운 마음을 얻으세요. 하나님과 바로잡으십시오.

당신의 죄에서 돌아서십시오. 새로운 마음을 얻으세요. 왜 당신은 당신의 죄 때문에 죽어야 합니까? 그리고 만약 당신이 이 마음의 변화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그곳으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마음에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서는 에스겔 11장 18절과 19절에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넣어 주리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의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리라. 그러므로 신명기는 여호와께 할례를 받으라고 말합니다.

마음에 할례를 베풀라. 사람들은 반항적이고 목이 곧습니다. 그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실 것입니다.

에스겔서, 새 마음을 얻으세요. 왜 죽어야 하는가?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포로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시나요? 나는 그들에게 새 마음을 주겠다.

동일한 움직임이 예레미야서에도 나타납니다. 책의 맨 처음 부분에 나오는 반환 요청 에서 거기에 사용된 비유를 기억하세요. 예레미야 4장 2절, 마음에 할례를 받으라.

저항력이 있는 흙을 갈아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마음에 할례를 베풀라. 사람들은 결국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들이 사랑하는 죄가 그들의 마음에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소망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무엇을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까? 그들에게 새 마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움직임으로 새로운 마음을 얻으십시오. 사람들은 그것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궁극적으로 그들에게 새 마음을 주십니다. 예레미야만이 아닙니다. 신명기이기도 하고 에스겔서이기도 합니다.

패턴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의 변화를 가져올 심장 수술을 하실 것입니다. 좋아요.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에 율법을 기록하시고 그들에게 순종하려는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심장 수술을 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나요?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그의 마음에 법을 어떻게 기록하시는가? 자, 우리는 선지자들에 대한 몇 가지 다른 구절과 다른 약속을 제시하기 시작합니다.

알다시피, 예레미야는 새 언약이라는 용어에 있어서 다소 독특하지만, 기본적으로 동일한 내용과 하나님께서 미래에 이스라엘과 맺으실 이 언약에 대해 이야기하는 다른 선지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새 언약의 때는 왕국과 회복의 때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새 언약은 예레미야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선지자들 전체에서 읽는 회복의 약속과 실제로 일치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방법은, 예레미야서에서 이 회복을 가져오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삶에서 무엇을 하실 것인지에 대한 다른 약속들 옆에 그 구절을 놓았을 때, 여기에 그가 율법을 기록하실 방법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그분은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방식으로 자신의 영을 부어주심으로써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에서 마음에 율법을 기록한 것은 성령의 부어짐과 하나님의 영의 부어짐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다른 많은 예언적 구절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만 언급하겠습니다. 이사야서 32장 14절과 18절입니다.

예루살렘은 멸망될 것입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14절에서는 그 궁궐이 버림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게 얼마나 오래 지속되나요? 15절, 마침내 우리에게서 성령을 위에서 부어 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삼림으로 여기게 되리라. 변화를 가져올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새로운 방법으로 그의 영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그분의 마음, 그분의 백성의 마음에 율법을 기록하실 것입니까? 그분은 그들 안에 자신의 영을 두실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20절과 21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시리니 곧 야곱 가운데서 그 죄과에서 돌이키는 자에게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리고 나로서는 이것이 그들과 맺은 언약이다.

새 언약을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맺으실 미래의 언약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가 네 입에 둔 나의 말이 네 입에서와 네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주님은 내가 내 영을 부어주리니, 그 영은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백성의 입에 넣어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이 예레미야 1장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위해 행하신 일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그 말을 삼켰고 그 말은 그의 입맛에 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의 구체화된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이것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일어날 일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살아있는 표현이 될 것입니다.

왜? 성령님의 능력과 권능 때문입니다. 요엘 2장에서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와 온 이스라엘 곧 젊은 남자와 젊은 여자와 늙은 남자와 노부인과 온

이스라엘의 큰 자들과 지도자들과 고관들에게 그의 영을 부어 주실 때라고 말합니다. 선지자가 아니라 백성 자신입니다. 과거에 경험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사람들의 영, 즉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어지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율법이 그들의 마음에 새겨져 그들이 순종하려는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이제 저는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4절을 선택하여 선지자들의 글과 가장 밀접하게 평행을 이루는 구절인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8절을 옆에 놓는 것이 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구절을 보세요.

우리 수업에서 이 구절을 공부하면서 나는 종종 학생들에게 이 두 구절을 나란히 놓고 이 구절의 유사한 점과 다를 수 있는 점을 비교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들이 각각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알려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에스겔은 이렇게 말합니다.

26절, 내가 너희 속에 새 마음과 새 영을 넣어 주리라. 예레미야는 “나는 율법을 기록하겠고 여호와와 우리 마음에 법을 기록하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에스겔서의 메시지는 더욱 번역된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완전히 새로운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리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나는 내 영을 너희 속에 넣어서 너희가 내 율례를 따르게 하고, 내 법도를 지켜 행하게 하겠다. 그러면 예레미야서에서 그들이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은 그들의 마음에 법을 기록하실 것입니다.

에스겔서에서 백성에게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서는 그들 안에 그분의 영을 넣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율법을 백성의 마음에 기록하실 것이라고 말한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는 주님께서 자신의 영을 주심으로써 그들의 순종을 가능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이는 마치 이스라엘이 불성실한 언약의 파트너였던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그들이 마침내 신실한 언약의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과 능력으로 그들 안에 오실 것입니다. 이제 이 모든 것과 미래에 약속된 것에 비추어 볼 때 예레미야가 옛 언약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과 예레미야가 말하고 있지 않은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앞으로 더 큰 역량과 권한을 부여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이스라엘이 이전에 경험한 것과는 전혀 다른 영의 부어짐이 있을 것입니다. 더욱 급진적인 용서가 있을 것이며 이 모든 것이 가능화의 일부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가 말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옛 언약 하에서 능력과 능력을 주시지 않았다고 주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이 옛 언약의 하나님께 순종하려면 기본적으로 그들 자신의 힘으로 순종해야 했습니다. 자신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십시오.

새로운 마음을 얻으세요. 또는 그들이 법을 지키려고 한다면, 그들이 규칙에 따라 생활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일종의 외부적인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율법주의적인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은혜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예레미야가 옛 언약에 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또한 하나님께서 옛 언약 하에서 자신의 백성을 실패하게 하시고 그들이 그분께 순종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셨다는 뜻도 아닙니다.

그건 사실이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때 베풀어주신 구원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문제는 당시 이스라엘 민족 안에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는 은혜를 활용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옛 언약에는 은혜가 없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새 언약에는 은혜가 주어질 것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의 다른 점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시는 넘치는 은혜를 백성들이 마음껏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들어 봐.

신명기 10장에서 주님께서 마음에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실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마음에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을 따르겠다고 마음에 정할 능력을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시지 않았다면 그것은 기본적으로 친절한 것입니다. 빈 명령. 주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하신다는 사실은 그들이 하나님께 올바른 방식으로 반응한다면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모세 율법을 준 다음 신명기 30장에서 그들에게 언약적 책임을 상기시켰을 때, 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모세 율법은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분의 율법을 순종할 능력을 주셨다고 말했습니다. 신명기 30장 11절에 보면,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은 네게는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그것을 얻으려면 하늘에 올라가야 하는 것은 먼 하늘이 아닙니다.

땅을 깊이 파야 하는 곳은 땅속 깊은 곳까지 내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당신 앞에 있습니다. 주님은 출애굽 당시 백성들을 위해 행하신 일과 구원의 기적을 통해 영적인 개인적 변화를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문제는 옛 언약 아래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전혀 활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옛 언약 하에서는 개인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면서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것과 유사한 영적인 거듭남과 변화를 경험했다고 믿습니다. 그들이 개인적인 방법으로 주님을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분을 사랑하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과 그들의 마음에 율법을 기록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면서 그들의 삶에 변화의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37편 30절과 31절에서 의인의 입은 지혜를 말하고 그의 혀는 공의를 말하며 말한다. 하나님의 법이 그의 마음에 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옛 언약 아래에는 예레미야가 약속한 것을 그대로 경험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그들의 마음에 법을 기록하리라 시편 기자는 내가 그것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40장 7절과 8절에서 다윗은 왕으로서 말하기를 보라 내가 나를 가리켜 기록된 두루마리 책에 왔노라 하였느니라. 다윗은 왕으로서 율법책이 나에게 할 말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나에 대해 쓰여졌습니다.

나는 왕좌에 오르면서 그 사본을 적어 두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또한 8절에서 “나의 하나님이며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기뻐하나이다”라고 말합니다. 주의 법은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옛 언약에는 사람들이 율법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인간적인 외적인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나는 그들이 영의 재생 역사를 경험했다고 믿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영의 사역과 영의 사역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제시되거나 확장되지 않았지만, 나는 그것이 어떤 실제적인 방식으로 거기에 있었다고 믿습니다. 다윗과 같이 주님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시편 119편에서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율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이처럼 아낌없이 표현합니다.

그에게는 꿀보다 더 귀하고, 꿀보다 더 달고, 금보다 더 귀하니라. 그리고 다윗이 레위기에 대해 이렇게 흥미를 느꼈다면 그가 로마서와 요한1서를 읽을 수 있다면 어떤 느낌일지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나 그는 옛 언약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편에서 그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을 표현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또한 “하나님, 제 삶에 이 일을 순종할 의향과 의지를 주시는 일을 행해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나는 나 혼자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나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푸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개인적으로 알게 된 사람들에게 기꺼이 그것을 허락하셨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범죄한 후 이 죄를 숨기고 마침내 하나님을 떠난 오랜 기간 끝에 시편 51편에서 하나님께 나아와 새 마음을 창조하시고 새롭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내 안에 올바른 영이 있습니다. 저는 다윗이 상상하고 있는 것은 옛 언약 아래 있든 새 언약 아래 있든 개인이 주님께 순종하고 그분의 명령을 따르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영적 변화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옛 언약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제공되었습니다. 당신은 "그게 사실이고 말이 된다면 신명기 29장 2~4절과 같은 구절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여기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 목전에서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당신의 눈은 이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거기 무슨 일 이죠? 내 생각에 요점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스스로 활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주님을 진정으로 아는 자들을 위해 주님께서 행하신 마음의 변화를 경험하지 못한 것이 그들의 형벌이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나온 세대는 반역하는 마음을 품었으므로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으로 갈 준비를 하고 있는 세대에도 주님을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에 대한 이러한 묘사는 목이 곧고 반역적이며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실패하도록 설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인 의미에서 그것은 사실입니다. 결국에는 구원자가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옛 성약 안에서 개인이 주님을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옛 언약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와 맺은 국가적 언약이었습니다. 국가적 언약으로서 그 언약은 신자와 불신자 모두를 포함하고 포함했습니다.

여기에는 유대인 민족으로서 출애굽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그룹에는 개인적으로 믿음과 신뢰를 가져본 적이 없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런 개인적인 변화를 경험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진정으로 주님을 알고 개인적인 구원을 경험한 남은 자들은 종종 매우 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그 나라는 목이 곧고 패역하였더라.

그들은 마음이 완고했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아직까지 여러분에게 이해하고 순종할 마음을 주시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 자신의 선택이었다.

그것은 언약 자체가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진실로 알았던 사람들, 개인적인 회개와 신앙으로 그분을 알게 된 사람들은 마음의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점은 새 언약에서는 그 언약의 일부인 모든 개인이 개인적으로 주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언약에 속한 모든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과 구원의 관계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믿음과 회개를 통해 하나님과 구원의 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은 이 변화의 역사를 행하십니다. 아시다시피, 옛 언약은 여러 면에서 우리 교회의 역할과 비슷했습니다.

우리 교회의 역할은 우리 교인들과 개인적으로 주님을 아는 사람들로 구성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의 역할도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의 일원이기는 하지만 주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것이 바로 옛 언약 아래의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개인 구원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대다수였던 것 같습니다. 새 언약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온 나라가 그분을 따를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죄의 패턴이 깨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포로 생활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언약에 속한 모든 사람은 여호와를 알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 전체의 예레미야는 옛 언약 백성들이 이런 변화를 몰랐거나 경험하지 못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당신이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영적인 변화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는 거듭남이란 무슨 뜻입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요?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갈 수 있나요? 다시 어머니 자궁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날 수 있나요?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런 일을 모른다는 말이나? 에스겔 36장을 모르시나요? 당신은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들을 위해 항상 행하신 마음의 변화입니다.

그러나 새 언약의 능력과 능력은 언약에 속한 모든 사람이 주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대한 용서가 있고 미래에 대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서 보내는 시간이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나는 31장부터 34장까지 새 언약에 관해 주어진 다른 구체적인 약속들을 통해 일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의 마음에 율법을 주신 후, 3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이 되어라. 그래서 언약관계의 회복, 그 표현을 언약공식이라고 합니다.

여호와와 그들의 백성이요, 여호와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이스라엘은 회복될 하나님의 백성이니라. 더 이상 각 사람이 자기 이웃과 각각 자기 형제에게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좋아요.



이 언약의 일부인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직접적인 개인적 관계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옛 언약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국가적 언약과 이것이 신자와 불신자 사이에 세워진 방식으로 인해, 하나님의 임재는 주로 제사장과 선지자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지도자. 새 언약에서는 언약에 속한 모든 사람이 주님을 알게 되므로 하나님과 더욱 직접적인 관계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업 초반에 집중했던 약속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은 내가 그들의 불의와 죄를 용서하리라고 말씀하신다. 나는 더 이상 기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 죄 사함, 마음에 율법을 새긴 것, 언약 관계의 회복,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직접 아는 것, 그것이 가능함입니다. 그것이 바로 권한 부여입니다. 그것이 바로 위대한 구원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출애굽보다 더 큰 두 번째 출애굽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로서 우리는 이 새 언약이 단지 이스라엘 집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신약성경이 분명히 밝힐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 흥분해야 합니다. 유다 족속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지금 이 새 언약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죽으시기 전날 밤에 십자가로 가셔서 제자들에게 잔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예레미야가 약속한 새 언약에 영향을 미칠 피를 상징합니다. 예레미야는 새 언약을 약속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새 계약이 약속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고 실현시키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안에 넣어주신 새 언약의 축복을 경험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용서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새로운 방식으로 살 수 있는 권한을 받았습니다. 이제 이에 비추어 인용문으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존 골든 게이트(John Golden Gate)는 신약성경을 믿는 우리는 성취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새 언약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부어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이 어떤 사역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영이 훨씬 더 위대해졌음을 깨닫습니다. 더 큰 영의 부어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로 인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마음을 사로잡고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더 큰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골든 게이트는 우리 자신의 경험과 교회 전체의 삶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것에 비추어 생각해 보라고 말합니다. 그는 실천적으로 기독교 신자들의 지위와 삶, 혹은 기독교 신자들의 실천과 삶이 구약성서의 신자들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한다. 우리는 영의 열매를 맺는 룯과 한나와 같지만, 더욱 명백히 육신을 따라 사는 야곱과 다윗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영이 쏟아지는 것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가끔 우리 자신의 삶이나 신약성서의 성도들의 삶, 예를 들어 고린도전서를 보면 마치 영이 아직 주어지지 않은 것 같다고 골든게이트는 말합니다. 혹은 오히려 고린도전서의 관점에서 보면 영이 아직 주어지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영이 멀지 않은 것입니다.

사실 영을 주신 덕분에 해결해야 할 문제가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는 구약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과 마찬가지로 언약 소송과 하나님의 추방을 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로서 우리는 새 언약 아래서 우리가 누리는 능력과 능력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그의 영을 주셨으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께 순종할 수 있는 내적인 소망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사역자, 새 언약의 사역자인 우리는 우리가 나누는 메시지의 힘과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 메시지의 힘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설교, 성격, 프로그램, 교회를 통해 사람들의 삶을 바꾸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의 죄를 사하시고, 미래를 바라보며 순종하게 하신다는 새 언약의 삶을 변화시키는 메시지로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다음 수업에서 우리는 신약성경과 거기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추가된 계시에 비추어 새 언약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더 깊이 생각해 볼 것입니다. 하지만 이 수업을 마치면서 우리는 예레미야가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에게 약속한 회복과 주님께로의 복귀의 일부가 될 것이라고 약속한 것을 이미 경험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권한과 능력을 축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레미야서에 대한 강의를 하는 Dr. Gary Yates입니다. 26회기, 예레미야서 30~33장, 새 언약입니다.